

채굴-연구 비평 프로젝트

권혜인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채굴-연구 비평 프로젝트는 9명의 연구자가 9개의 SeMA 소장작품 연구범주를 통해 새로운 컬렉션 아이덴티티와 미래 방향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미술관의 의뢰에 따라 연구자들은 해당 범주의 작품 목록을 받아 소장작품 데이터베이스 접속, 작품 실건, 각 범주에 대한 비평과 작품추천으로 연구협력을 진행하였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소장작품 수집의 전략과 방향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공공미술관의 소장작품은 국내외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공유되고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컬렉션의 차별화된 미래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미술사적 맥락 하에서 대표작들을 선정하고, 누락된 부분을 보강하며, 분관별 특화 컬렉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컬렉션 형성에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작업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전시에서는 다른 층위의 설계를 시도하였다. 즉 현재까지 수집한 5,000여점의 작품이 수집 제도의 형태, 기관의 지향성, 공공미술관으로서의 입지 등의 작용으로 형성된 것이라 할 때 여기서 드러난 특징적인 작품군 9개를 일차적 연구 주제 범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컬렉션 형성의 조건들은 지속될 것이고 때문에 해당 조건 하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9개의 범주는 각각 <근현대>, <회화>, <조각 및 설치>, <뉴미디어>, <사진>, <사회적 미술>, <동시대성의 빠른 포섭(20-30대 작가 작품 및 형식매체 실험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야외조각 및 공공기관 대여용 작품, 취약 장르 지원 개념의 수집 작품)>, <도시 서울>이다.

이차적으로는 단순히 대표작가나 대표작 중심이 아닌, 숨어있는 맥락 또는 사회적, 미학적 변화의 순간을 드러내는 작품, 혹은 대표작의 위상을 흔들 수 있고 다른 작품들과 연결하여 컬렉션의 확장 가능성이 있는 작품들을 채굴해내고자 하였다. 이런 방식은 실험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추구해 온 서울시립미술관의 '태도'로서 컬렉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계 위에서 연구들은 시대, 장르, 기관

비평을 가로지르는 범주와 작품 추천 기준으로 인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겹치기도 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발생시켰다. 연구자들은 연구 범주별로 앞으로 어떤 부분을 연구해야할지, 어떤 특성과 비평적 논점들이 있는지를 제언한다. 또한 작품 추천은 숨어 있던 작품들을 드러내어 앞으로 어떤 분석적 도구나 선택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을지 발견토록 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가 다른 맥락과 층위의 컬렉션을 개발해내는 모델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시 이후에도 후속 연구들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쉽지 않은 이번 연구에 참여해주신 연구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본 원고는 《컬렉션_오픈 해킹 채굴》(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021.01.26 ~ 2021.04.11.)의 도록 『컬렉션_오픈 해킹 채굴』(2021)에 수록되었습니다.

© 작가, 저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모두의 연구실 '코랄'에 수록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작가, 저자,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에 있으며, 저작자와 서울시립미술관의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